



대안가정

통권20호 (2008년 겨울/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스케치 / 2008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 4. 특집(부설기관) / 아동 그룹홈 소식
- 6. 소개 / 신고합니다!
- 7. 사업 / 2008 주목할 사업
- 8. 집중 / 사례 동화 『등지를 날아오르는 어린 새』
- 10. 대안가정 일기(5가정 발췌)
- 13. 그림일기
- 14. 2007년 상담현황
- 15.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 16. 창립6주년 후원의 밤 - 행 · 복 · 나 · 님



◀ 2008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편/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8. 2. 22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2008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2008년 1월 28일(월),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이 진석타워 웨딩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와 더불어 대안가정 가족들과 회원들이 만남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오후 7시부터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마무리는 대안가정 가족들의 소개 및 합창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대안가정 가족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볼까요?



▲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 회의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 개회선언,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 임원진의 인사~



▲ 사례동화집의 그림을 그려준 이주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 해마다 행사진행을 맡아주신 방송인 장인환님께 감사인사와 선물을 전합니다~



▲ 동진이네 대안가정



▲ 대현이네 대안가정



▲ 정민, 진이, 병산이네 대안가정
진이야 얼굴 좀 보여주라~



▲ 다혜네 대안가정, 대식구네요~



▲ 하연이네 대안가정



▲ 솔이네 대안가정



▲ 마지막으로 (아빠 힘내세요!) 합창!^^



▲ 해뜨는집 가족들~

※ 총회에서는 차학태님(솔이네 대안가정)이 신입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임원진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해맑은 아이들의 집』 언제 문을 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문고리 부여잡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들입니다. 어동그룹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동생활가정(어동그룹홈)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야 하기에 2008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결정하였고, 지난 2월 5일 대구시에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승인이 나면 법원에 법인등기를 다시 하고, 이후에야 구청에 시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단계별로 절대시간이 소요되기에 예정대로 2월 중으로 개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모든 준비가 되었고, 보육사 선생님이 지난 1월 25일부터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 여기며 몸을 아끼지 않고 집을 가꾸며 큰집을 홀로 지키는 고빛나 선생님은 딱 『해맑은 아이들의 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며 행운입니다. 이름처럼 『해맑은 아이들의 집』을 환하게 밝히는 빛나는 이모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해맑은 아이들의 집』의 일상은 독립된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에 물품을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증자	물 품
박주희(송해익)	냉장고
안효자(이수형)	세탁기, 침구, 접시, 수건
이상배	에어컨
김형구	텔레비전
박한배	전기압력밥솥
윤순조	전기압력밥솥, 반찬
이왕욱	진공청소기, 토스터
이태원	옷장, 식탁, 책장 등
김명희(은재식)	카펫, 식기, 침구, 책상 등
이병희	컴퓨터, 복합기
차학태	도서

필요한 물품	
가전제품	비디오(DVD)
	전자렌지
	다리미
주방용품	조리기구
	냄비세트
생활용품	침구류
	벽시계, 자명종
	수건
교육용품	컴퓨터책상(좌식)
	아동도서
	학용품

『해맑은 아이들의 집』 구경하세요!



▲ 거실-동쪽으로 큰방



▲ 작은방1/여자아이들 방 (작은방2/남자아이들 방)



▲ 거실-북쪽으로 베란다



▲ 내실/보육사 방-화장실2



▲ 큰방-왼쪽에 붙박이장



▲ 거실-서쪽으로 작은방 두 개



▲ 화장실1



▲ 주방-왼쪽에 물품보관실



신고 합니다 !

고빛나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보육사



“빛나 쌤! 면접 볼 때 혹시 빛나 쌤이 되겠다고 예상했어?”

“네, 예상에 더해 확신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걱정되더라고요.”

“왜?”

“저하고만 면접보시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 면접 보시느라 힘들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하하!!!” 오늘 「해맑은 아이들의 집」에 짐을 가져다 놓으며 국장님과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신고합니다!

2008년 두근거리는 가슴안고 「해맑은 아이들의 집」이모가 된 고빛나 인사드립니다.(꾸벅!)

국장님을 만나고 「해맑은 아이들의 집」에 발을 내딛는 순간 느꼈습니다.

“아이쿠! 내가 시설에 온 게 아니라 헤어날 수 없는 조직에 발들인 거구나! 어차피 헤어날 수 없다면 빠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나니 그룹홈도 「우리 집」이라고 불려지고, 만나는 분마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가 인사말이 된듯합니다.

저는 특출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잘못도 덮어주고 풀어줄 만큼 너그러운 성품도 못된답니다. 평범함에 덜렁거림이 조금 더한 성격이라 좌충우돌 몸으로 부딪히고, 배우고, 울고, 웃으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애들이 더 걱정스러워요. 부딪혀서 멍들어도 “괜찮아! 피 안 나잖아!” 이라고 넘어가 버리고, 워낙 덜렁거려서 가방 열린 것도 모르고 뛰어가느라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물건 주워서 챙겨오느라 더 바쁠 거고, 장보러 가도 이 끝에서 하나 고르고 저 끝에 뛰어가서 하나 고르고 마트를 서너 바퀴 돌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실컷 고른 거 몽땅 제자리 찾아서 다시 진열대에 두는 맘에 드는 거 하나만 달랑 사서 오니 따라다니는 아이들 인내와 체력이 평균 이상이어야 할 거고,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 먹으려고 사둔 과자는 야금야금 다 먹어 치울 거고, 더 이야기하면 다들 걱정하실 것 같네요.

무슨 일이든 물 흐르듯 너무 쉽게 흘러간다면 재미없겠지요?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안가정 가족 여러분께 여쭙가며 배울 일도 도움 구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도와줄 거 없나~’ 살피고 두 집 살림하시느라 바쁘신 철의 여인 우리 국장님과 자상하고 사려깊으신 좋은 사람 우리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신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해맑은 아이들의 집」빛나는 이모였습니다.

대안가정 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는 위탁아동과 대안가정 친자녀를 대상으로 대안가정과 가정 위탁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돕는 아동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캠프와 가족나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2007 작은캠프

★ 지원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세부내용 :

일 정	내 용
작은캠프	- 가족이란 뭘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반편견교육)
큰캠프	- 가정위탁 동화 읽기 - 우리가 만드는 대안가정 이야기(책 만들기) - 내 마음 열어보기(미술치료)
가족나들이	- 대안가정들 간의 친목 및 교류

부모코칭 프로그램 'Active Parenting Now'

'Active Parenting Today' 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대안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맞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고, 가정 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가정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 강사 : 김명희 사무국장

★ 세부내용 :

일 정	내 용
연중 6회	- 교육내용 1. 적극적인 부모 2. 협동심을 구하기 3. 책임감과 훈육 4.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이해하고 교정해주기 5. 용기, 품성, 자기존중감을 길러주기 6. 적극적인 가정 Now!



▲ 2007 심화부모교육



사례동화 『둥지를 날아오르는 어린 새』

위탁아동의 관점에서 쓴 그림동화책 『둥지를 날아오르는 어린 새』가 발간되었습니다.

2007년 하나은행 지원으로 제작된 이 동화책은 김명희 사무국장의 글과 이주영 아동(초6년)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0쪽 분량의 이 동화는 대안가정 아동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 뜻깊다 하겠습니다.



- 목 차 -

대안가정

엄마 아빠가 떠나고

할머니와 둘이서

할머니와 헤어지다

대안가정으로 가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대안가정 가족들

새로운 출발

에필로그

위탁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동화 『둥지를 날아오르는 어린 새』를 내면서 나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난 7년간 우리 가족으로 함께 한 큰딸이며, 따라서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나는 심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다른 한편으론 좀 더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렸다. (김명희 / 발간사 중)

▶ 사례동화 둘러보기



할머니와 둘이서

우리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는데, 늘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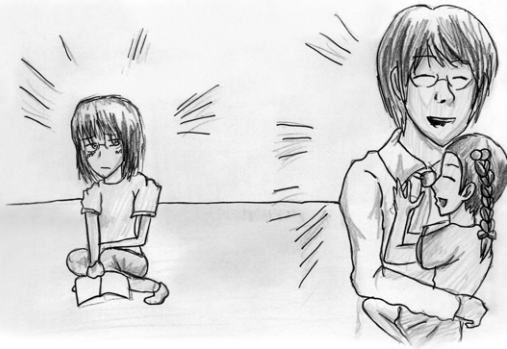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반찬을 갖다 주어서 밥만 따로 해서 먹었는데, 주로 멸치조림이나 오징어조림 같은 마른 반찬들이라 잘 먹히지 않았다.

공부방에 가면 선생님이 피자나 돈가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공부방에는 아이들도 많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대안가정으로 가다

자신들을 삼촌 숙모로 불러달라는 낯선 사람들을 따라서 나는 대안가정으로 왔다.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우선은 마음이 놓였다. (중략...)



내가 대안가정에 온 첫 날, 내 방을 기웃거리던 조그만 여자 아이는 삼촌 숙모가 입양한 딸이었다.

삼촌 숙모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와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진이와 나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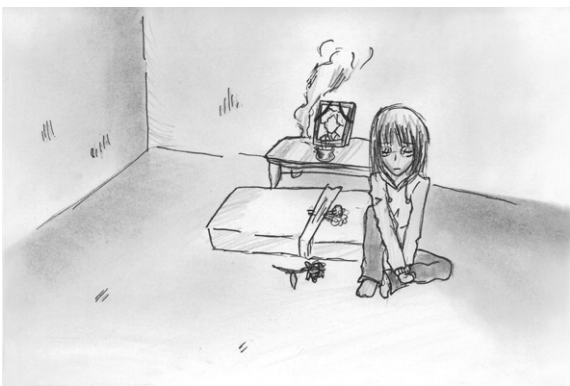
또 나는 가끔 그들 가족의 일원이 아닌 외톨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중략...)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학년 봄 어느 날, 삼촌이 학교로 나를 찾아오셨다.

선생님은 삼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신 후 나에게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집으로 오면서 삼촌은 내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그냥 멍하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중략...)



* 실제 그림동화책은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2007. 10. 6 / 고민

우리 어진이 여섯 살... 예전에는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하고 엄마랑 결혼 하겠다고 하더니 마음이 변한 거야.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할 수가 없단다. 누나랑은 아직도 결혼할 마음이 조금 있다. 누나랑 안하라고 하면 누나가 빠지는 걸 알아서일거야.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채영이라는 여자애가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고 가져왔다. 전화도 서로 하고...
“채영이가 이빠?” “응. 이빠” “채영이랑 결혼할거야?” “아니” “왜 채영이가 이쁘면 채영이랑 하지” “안

2007. 11. 15 / 일상에 젖어

오빠 언니들이 모두 학교로 떠나고 늦은 시간에 다혜는 일어난다. “언니는?” “벌써 학교갔지” “아빠는?” “아빠는 공부하시지” 부시시한 얼굴로 눈을 반쯤 감긴 채 화장실로 간다. 작은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혼자서도 볼을 쥌 수 있다고 좋아하던 게 엇그제 같다. 아들이는 벌써부터 다혜 생일 잔치에 대해 묻는다. “엄마, 그냥 나랑 같이 하면 안될까? 안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아들이는 12월 2일. 다혜는 11월 28일. 그럼 며칠에 해야하나? 그냥 아들이 때 같이? 아니지... 그럼 다혜가 서운치 ㅎㅎ 아니 딸들이 서운치. 왜냐고? 맛난거 두번 먹을 텐데 한번으로 줄어들면 얼마나 억울하겠노 *^^* “엄마, 내 머리길지?” “응” “어떻게 길어? 잠자면?” “응, 또 밥도 잘 먹고” 사실 다혜머리카락은 겨우 묽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인데 자신이 생각하기엔 길다고 느껴진다. 아침에 어린이집 갈 준비를 다 마치고 머리를 묶고나면 거울앞에 서서 만족한 미소를 띄운다^ 가을이 깊어 가듯 우리들의 사랑도 깊어만 간다.

2008. 1. 9 / 솜사탕 사랑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었어요. 아빠는 바빠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 할머니, 언니 둘, 오빠 셋(사촌들

돼. 김세영이랑 해야돼” “너 세영이가 더 좋아?” “아니” “그럼 왜?” “결혼 안한다고 하면 운단 말이야” “울어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 하는거야” 했더니 어진이 알... “올면 선생님한테 나 혼난단 말이야” ㅋㅋ

2007. 12. 23 /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동안 대안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때마다 절기마다 잊지 않으시고 선물바구니 가득 마음 담아 주신 것 잊지 않을게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건 어진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 그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어진이 벌써 일곱 살이에요. 일곱살이 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날들이 될거란 생각을 해요. 모두 모두가 예수님 닮아 가는 아이들 되기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까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온가족이 축하하러갔었죠. 대기실에서 준비 중인 다혜를 잠깐 봤는데 하늘의 선녀가 따로 없더라구요, 이쁘게 화장까지 하고 살짝 웃는 모습이 꼭기만 했답니다. 고개를 숙 내밀고 언제 다혜 차례가 오나 기다리니 드디어 다혜 차례. 관람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인해 다혜가 엄마를 보지 못할까봐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다혜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줬답니다. 다행히도 다혜가 손을 흔들어 엄마를 봤음을 알리더군요. 두번째 다혜의 무대. 이번엔 부채춤이랍니다. 10여명의 아이들 가운데 엄마 눈에는 다혜밖에 안보였는데... 가슴이 몽글하니 또다시 주책스럽게 눈물이 나더군요. 눈물의 의미를 굳이 정의하고 싶진 않네요. 캔디처럼 참고참고 또 참았지만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감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우리 식구는 손에 솜사탕 하나씩 들고 하늘만큼이나, 솜사탕 만큼이나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2007. 11. 6 / 하연 고모...

보내주신 정성 잘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진을 자주 못 올려서 미안하네요. 핑계를 대자면 10월 중순쯤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사느라 없는 시간이 더 없어서 컴앞에 앉아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연이 동영상도 열개정도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올릴수가 없고 싸이엔 하연이 이름으로 올릴려니 부모가 아니라서 인증이 안나네요. 참, 요즘 날씨가 추워서인지 하연이가 아팠어요. 기침도하고 콧물이나서 코도 막히고 잠자다가 짜증내고 괴로워하더라구요. 병원에 매일 가서 약

받아 먹이고 치료했더니 어제부터는 콧물만 조금나고 다 나았어요. 장난치고 소리도 크게 내고... ㅎㅎ 목소리 진짜 엄청커요. 클려고 아프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이만, 행복한 하루되세요.

2007. 12. 30 / 하연이 두 번째 겨울이 왔어요

윗니 아랫니 각 4개, 윗어금니 2개가 나오는 중이라 요즘 다시 침을 흘리는 하연양. 감기가 낫다가 다시 도지기도 하고.. 무(물), 쥐(주세요), 빵, 언니, 아파, 공, 이와(사과) 단어를 말하고... 양말을 혼자 신어보려고도 하고, 공기하는 언니틈에 끼볼려고 방해공작도 해보고... 머리에 그려지는지요. 밥 자알~ 먹고 감기빠곤 아픈데 없이 무력무력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하연이가 깰려고 하네요. 새해에 다시 만나고요, 모두들 새해 복 알아서 받으세요.

2007. 12. 20 / 은하가 대안가정으로 가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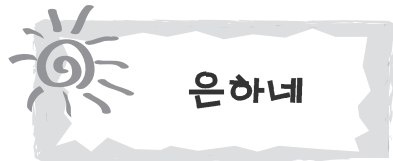
세상에 태어난지 40일도 채 안된 은하가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출산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얼마 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은하는 그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 신생아실에 있다가 오늘에서야 따뜻한 대안가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들은 그렇게 동생을 기다렸는데 막상 작고 큰 눈망울을 가진 은하를 보니 쭉스러운지 슬쩍 쳐다보고 웃기만 하더군요~

대안가정 아빠도 아직 은하가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대안가정에서 첫날!~ 은하는 큰일(?)도 치르고 우유도 잘 먹고 잘 잤다고 합니다. 너무 순하다네요~ 앞으로 은하의 성장일기 많이 많이 봐주세요!~



2008. 1. 2 / 스키장 다녀왔어요

혹시 감기에 고생할까봐서 감기약 미리 짓고 해서 강원도엘 다녀왔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잘 자고 가셔도 따뜻한 방에서 얼마나 잘 자던지 은하가 보채지 않고 해서 잘 다녀왔답니다. 사진은 조만간 올릴게요. 조카가 얼마나 은하를 예뻐하던지 아이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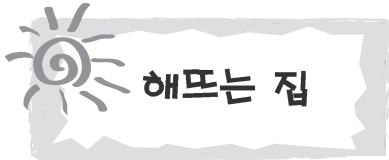


켜보는 이들이 넘 은하를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웃는 모습에 모두들 쓰러집니다. 눈 뜨면 한번 더 쓰러져요. 넘 예쁜 은하! 모두 행복하세요.

2008. 1. 10

/ 예방접종 하고 왔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 다녀왔답니다. 웨이리 몸이 무겁던지요. 일찍 목욕하고 가서 양쪽 허벅지에 접종하고 와서 잘 자고 있답니다. 많이 아팠는지 한참을 울고 왔어요. 요즘엔 웅알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늘 몸무게 측정 결과 6kg 58cm. 의사선생님께서 우렁아랍니다. 오늘도 성심성의껏 보내주신 송광익 선생님께 감사하구요. 바로 근처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많은 배려 감사드려요. 조만간 은하의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2007. 12. 21 / 잠들기 전 행사

요즘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다. 혜운이 손등에 바세린을 듬뿍 발라서 비닐장갑 끼우는 거다. 아니 요즘 손 트는 애가 어디 있다고.. 얼마 전에 발견했을 때 목욕시켜서 로션 듬뿍 발라 겨우 잠재워 놓았는데 세상에 그새 또 엉망이 되어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손튼 애 데리고 피부과에 가자니 참 민망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그러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아빠를 만나기로 했는데 애 손튼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근데 왜 손이 트는 거야. 좀 깨끗이 씻고 로션 잘 발라주면 손튼 일 없을텐데... 정말 내가 못산다.

2007. 12. 26 / 혜성이의 수난

올 연말에 혜성이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열나고 토하는 걸로 몇번을 놀래키더니 이어 열감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새벽에는 팔이 빠져서 응급실까지 갔다. 그런데 팔이 빠졌는데 왜 손목이 아픈 것인지.. 혜성이 웃기는게 병원 가면 주사 맞는 줄 알고 기를 쓰고 안가겠다고 떼를 쓰며 울어댄다. 또 옷 입히다 보면 아픈 팔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미니 담요로 둘둘 말았는데 기어코 옷을 입겠다고. 한밤중에 아픈 애 정식으로 옷 다 입혀서 당번병원 찾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든지... 의사선생님이 혜성이 팔을 잡고 살살 돌리면서 "아프지?" 하자 엉엉 울어대면서도 안아프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푹! 소리가 나면서 혜성이가 한 번 자지러지게 울더니만 뼈가 제자리를 찾아들어갔다. 그리곤 집에 오면서부터 벌써 시끄럽기 시작해서 잘 못다. 아직 쿨물감기도 조금 달고 있고.. 빨리 나아야 할텐데...

■ 본부소식

• 경주동국대학교 학생 단체방문

11월 30일(금) 경주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단숨에 대구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대안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 2008년 이사회

1월 21일(월), 영남별장에서 2008년 첫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2008년 사업계획, 아동그룹홈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08년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1월 28일(월), 진석타워 웨딩홀에서 「2008년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이 있었습니다. 2007년 사업보고와 2008년 사업계획, 임원 선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임원진과 대안가정 가족들,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교재를 나누었습니다.

■ 아이들 소식

• 솔이, 셋별이가엄마,아빠를 만났습니다

12월 7일~9일, 아이들이 그토록 보고싶었던 엄마,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조만간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무척기뻐했습니다.

• 혜운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과 설 연휴에 혜운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도 만나고 친척들에게 세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됩니다~

• 은혜(생후 40일, 여)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출산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은혜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병원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은혜의 사정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선뜻 대안가정이 되고자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기다리던 여동생이 와서 너무 좋네요~ 은혜야!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림일기



기초부모교육

희연이네는 경북 봉화에서 기초부모교육을 받고자 단숨에 대구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아버님, 편안하고 따뜻한 어머니님, 명랑하고 예쁜 희연이!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희연이네에도 좋은 인연이 닿기를 바랍니다. 1년 전 귀농하셨다면 귀한 머루 발효 효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히 자~알 먹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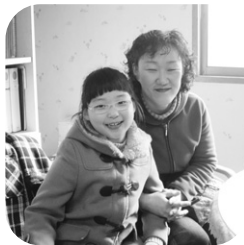


경주동국대학교 학생 단체방문

11월 30일(금) 경주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단체방문을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가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배곡하게 메모해 온 질문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안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 놀이와 큰아빠!~



▲ 셋별이와 큰엄마

솔이, 셋별이가친가정으로 귀가하던날!

2008년 1월 30일, 솔이와 셋별이가 친가정으로 귀가했습니다.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날이지요, 대안가정으로 가던 날, 아이들이 아빠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훌쩍 커버린 아이들... 솔이는 빨리 아빠를 만나고 싶어 아침부터 서둘렀다면서 웃었고, 셋별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언니부터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재잘재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분주했고, 어른들은 헤어짐을 앞두고 섭섭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웃으며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셋별이네 큰엄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셋별이가 “큰엄마 눈물이에요?”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솔이, 셋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

■ 상담현황 (2007년)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 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월	2	19	-	17	4	1	-	1	44	1	-	1
2월	18	7	6	15	12	-	2	4	64	2	3	5
3월	7	22	9	38	16	-	5	-	97	1	-	2
4월	6	6	5	19	3	-	4	1	44	-	1	2
5월	3	10	6	11	5	-	7	12	54	1	4	3
6월	4	18	3	15	-	-	6	1	47	1	1	1
7월	3	21	1	18	2	1	3	2	51	2	-	1
8월	17	29	13	30	18	2	17	3	129	3	1	2
9월	2	26	6	28	7	1	4	3	77	1	1	1
10월	5	9	8	12	7	-	-	2	43	2	2	1
11월	2	-	5	-	-	-	3	5	15	-	2	-
12월	12	10	6	13	8	1	-	3	53	2	1	5
계	81	68	68	216	82	6	51	37	718	16	16	24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상담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1월		33	1	5	3	2	44
2월		55	4	4	-	1	64
3월		86	1	6	4	-	97
4월		41	1	-	1	1	44
5월		47	-	2	2	3	54
6월		42	-	2	2	1	47
7월		45	1	3	2	-	51
8월		98	2	13	13	3	129
9월		66	-	2	6	3	77
10월		34	1	3	5	-	43
11월		11	2	1	1	-	15
12월		39	-	11	3	-	53
계		597	13	52	42	14	718

* * * * *

‘사랑의 저금통’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8일 정기총회 날을 시작으로 나눠드린 ‘사랑의 저금통’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드릴 때는 그저 연두색 빈 저금통이었는데, 저렇게 가득 채워서 돌아왔네요.

· 후원해주신 분
송광익, 이태원, 오정희, 류정열, 이병희, 이재은, 사무국,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임윤성 변호사사무실, 이병희 변호사사무실

· 후원금액 : 534,210원

* * * * *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6주년 후원의 밤

행·복·나·눔 에 초대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도 대안가정운동본부가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창립6주년을 맞이하며,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하는 두 번째 **행·복·나·눔**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시 2008년 4월 28일(월)

오후 6시 30분~9시

장소 진석타워 웨딩뷔페



행사안내

- 이번 행사는 별도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으며, 후원약정서로 대신합니다.
-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민찬과 문화공연을 즐기며 행복을 나누세요.
- 경매코너가 있습니다.(미술품, 개인작품, 소장품, 기념품 등을 후원받습니다)

후원방법

- 후원금은 계좌이체나 당일 현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 후원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팩스(053-628-2595)로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 후원문의 ☎ 053-628-2592 daeanhome@hanmail.net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8-05-005600-9 (사)대안가정운동본부

